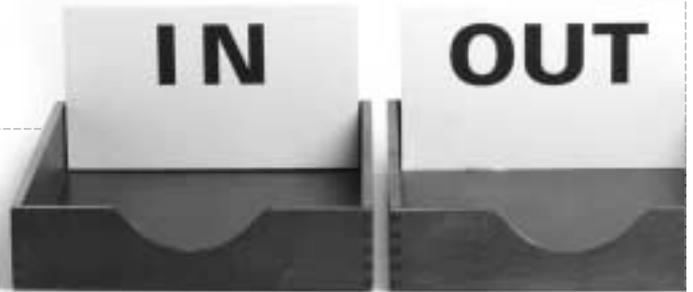


글 _ 전홍윤(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팀장)

사회적 투자, 나눔의 경제학



열 마 전 하버드대학은 250억 달러(약 26조원)에 달하는 대학의 기금을 운용하는 HMC(Harvard Management Company) 잭 마이어 사장의 사임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지난 1978년부터 하버드대학의 기금을 관리해 70억달러의 기금을 오늘날의 규모로 키운 마이어 사장의 경영적 성과와 함께 전 세계의 동문, 기업, 개인으로부터 모은 엄청난 기금의 규모다.

2004년 한 해 하버드대학의 총수입은 26억달러. 우리 돈으로는 2조 7천억원이 넘는다. 이중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전체의 31%인 8억달러로 8500억원이나 된다. 매일 23억원 이상의 기부금이 모였다는 얘기다. 하버드대학교는 기부금을 포함한 대학의 재원을 재투자함으로써 대학 자체의 명성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한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대학과 학문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하버드대학은 조사·연구에 5억 9천만달러 곧 우리 돈으로 6200억원을, 도서관에 1억 5천만달러(1570억원)를 투자했다고 발표했다. 향간에는 하버드대학의 도서 구입비가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도서 구입비보다 더 많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 그 규모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킹 카운티 유나이티드 웨이의 지혜

미국 시애틀에 있는 킹카운티 유나이티드웨이(United Way of King County)의 2005년 모금 목표액은 1억달러로, 1천억원이 넘는다. 물론 지역 내에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등 굵직한 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인구 60만이 채 안 되는 도시에서 1천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금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도시나 인구 규모에 비해 많은 모금액과 함께 이곳 유나이티드웨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기업, 시민으로부터 전해진 기부금이 단

한 푼의 운영비도 떼지 않은 채 100%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쓰인다는 점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바로 빌 게이츠로부터 들을 수 있다.

지난 2002년 빌 게이츠는 킹카운티 유나이티드웨이에 5백만달러(약 50억원)를 '사무국 운영비'로 기부했다. 자신이 스스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빌 게이츠는 누구보다도 자선기관 사무국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빌 게이츠의 선견지명(?)으로 킹카운티 유나이티드웨이는 기부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어서 미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모금 및 배분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외 부 효 과 의 해 결 방 안 , 기 부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 및 사회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경제학자 맨큐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시장의 실패를 외부효과(Externality)라고 불렀다.

맨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민간주체들의 노력으로 자원의 배분을 사회적 최적에 가깝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기부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제삼자에게 이익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 요인의 하나로 들었다.

다음은 이런 긍정적 외부효과를 만들기 위해 미국 공동모금회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투자-기부'의 가이드라인이다.

연간 소득 2만 4천달러까지는 소득의 0.6%를, 2만 5천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는 소득의 1.25%를 그리고 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게는 2.5%를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된 1달러는 1.9달러, 곧 2배의 긍정적 효과를 우리 사회에 되돌려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삶의 변화, 사회의 변화도 함께 말이다.